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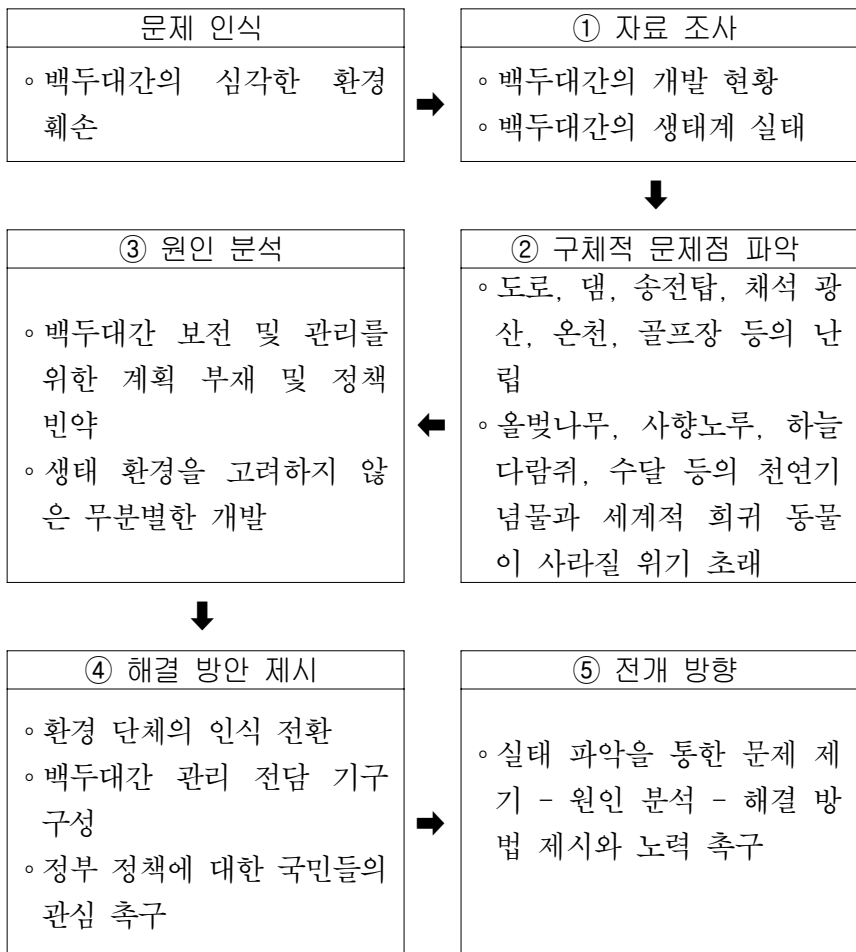
7. 다음 사진을 보고 글을 쓰기 위해 연상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끼리 묶은 것은? [1점]



- ㄱ. 무게 - 삶의 과정에는 무거운 짐을 감당해야 할 때가 있다.
- ㄴ. 속도 - 빠른 속도로 자기 길을 가는 사람은 주위의 삶의 모습을 지나칠 수 있다.
- ㄷ. 양면 - 도시에는 현대 문명과 전통 문화가 공존한다.
- ㄹ. 노력 - 꾸준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만이 성공의 열매를 맛볼 수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ㄱ, ㄹ
- ④ ㄴ, ㄷ ⑤ ㄴ, ㄹ

8. “백두대간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 계획을 세워 보았다. 세부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9. <보기>의 자료를 바탕으로 글을 쓰기 위해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다. 정리한 내용과 자료 활용 방안이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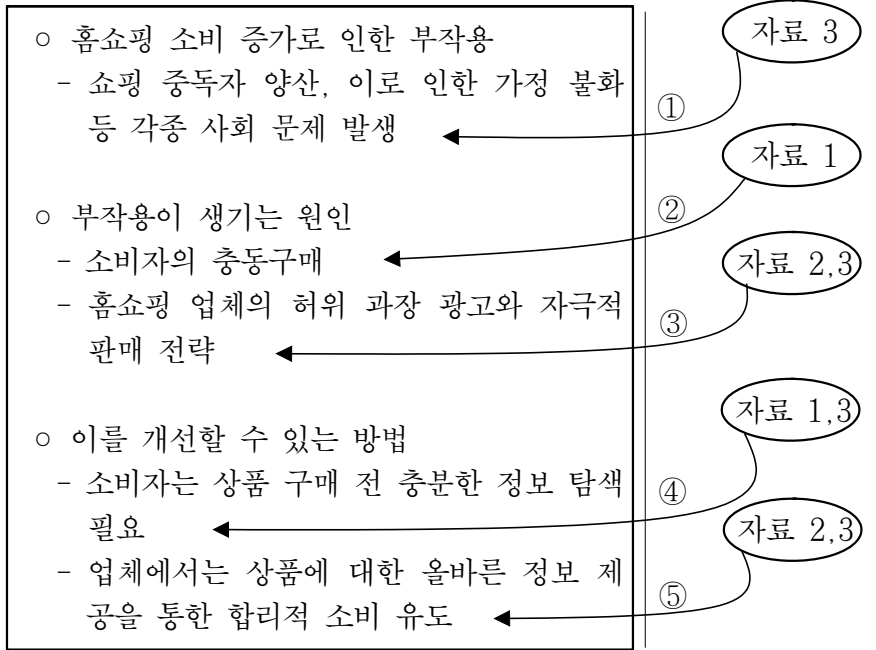
[자료1] 홈쇼핑에서 물건을 구매하게 된 이유

이유	빈도(%)
우연히 프로그램을 보다가 필요할 것 같아서	42.8
가격이 저렴하고 구입이 편리해서	30.1
부가적 혜택(무이자 할부, 사은품 등)이 있어서	20.2
시중에서는 구하기 힘든 상품이어서	6.9

[자료2] 홈쇼핑에서 상품 구매 시 불만 유형(중복 응답)

유형	빈도(%)
TV 내용과 실제 상품이 상이함	46.5
상품의 품질 불량	35.4
색상, 사이즈 등 주문한 것과 다른 상품이 배달됨	22.3
교환, 반품 등 A/S 지연	10.9
배달 지연	9.3

[자료3] 최근 홈쇼핑 시장은 전년 대비 152% 증가하였다. 한편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 업체는 경품 및 사은품 제공, 할인 혜택 등 각종 방법을 동원하여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고 있으며, 이런 유혹에 빠져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또 실제 구매한 물건의 품질이 방송 내용과는 다른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불만도 늘어나고 있다. - ○○○ 신문 기사에서



10. 동물을 소재로 짧은 글을 써보았다. <보기>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킨 것은? [1점]

- < 보 기 > —
- ㄱ. 유추를 적절히 사용할 것
 - ㄴ. 교훈적 의미가 드러나도록 할 것
 - ㄷ. 의문의 형식을 통해 내용을 강조할 것

- ① 머리가 나쁘기로 유명한 닭도 자기 새끼를 아끼고 사랑으로 돌본다고 한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 중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자식의 양육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모성애가 강한 닭에게 배워야 할지도 모른다.
- ② 돼지는 미련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호랑이도 밀어붙일 수 있는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사람 중에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비하만을 일삼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장점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 ③ 소떡새는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소재로 자주 사용되는데, 사실 소떡새는 다른 새의 둥지에 알을 낳고 사라지는 이기적인 새라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소떡새를 한의 정서를 나타내는 소재로 사용하는 것일까?
- ④ 백수의 제왕 사자는 열 번 중에 아홉 번을 실패한다고 해도 한 번을 성공하기 위해 사냥을 멈추지 않는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한두 번의 실패에 좌절해서야 되겠는가?
- ⑤ 배고픔을 참아 가며 보초를 서는 미어캣의 희생이 없다면 다른 미어캣들이 편안히 먹이를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전방을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희생이 없다면 국민들이 편안한 삶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11. <보기>의 개요에 대한 수정 및 보완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보 기 > —

주제문 : 인터넷상의 개인 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

I. 서론 :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현실

II. 본론

1. 개인 정보 유출의 사회적 의미
 - ㄱ. 범죄에 악용될 위험성
 - ㄴ. 사생활 침해 우려
2. 개인 정보 유출의 원인
 - ㄱ. 공공 및 민간 기관의 개인 정보 관리 소홀
 - ㄴ.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
3. 문제의 해결 방안
 - ㄱ.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망 구축
 - ㄴ. 개인 정보 유출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 ㄷ. 개인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의식 고취

III. 결론 : 공공 기관의 보안 의식 제고

- ① 주제문의 형식에도 맞고 전체 내용도 포괄할 수 있도록 주제문을 '인터넷상 개인 정보 유출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이를 해결하자.'로 진술한다.
- ② 'II-1. 개인 정보 유출의 사회적 의미'는 하위 항목의 내용과 어울리지 않으므로 '개인 정보 유출의 문제점'으로 수정한다.
- ③ 'II-2'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해 '개인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 양상'이라는 항목을 추가한다.
- ④ 'II-3-ㄴ'은 내용의 논리적 흐름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으므로 삭제한다.
- ⑤ 'III. 결론'의 내용이 지나치게 제한적이므로 '관련 기관 및 개인의 노력 촉구'로 수정한다.

12. <보기>는 두 가지 음식 문화를 비교하는 글이다. 고쳐 쓰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 보 기 > —

㉠ 음식을 먹는 방식을 나누면 대체로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음식을 한꺼번에 상 위에 올려놓고 먹는 공간형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음식이 준비되는 대로 먹는 시간형 방식이다. ㉡ 이 두 가지 중에 우리의 전통 방식은 공간형 방식이다.

공간형 방식은 반찬은 물론 국이나 찌개를 한꺼번에 상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음식의 양을 조절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C/

㉢ 그렇지만 시간형 방식은 ㉣ 음식이 순서에 따라 나오거나 익혀가며 먹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간형 방식에 비해 다소 시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음식이 나오는 중간 중간에 서로 정담을 나누는 여유를 가질 수 있어 소규모의 친목 모임에 적합하다.

- ① ㉠ : 문장에 같은 말이 반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음식을 먹는 방식은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로 고친다.
- ② ㉡ : 전체의 통일성을 위해, "이 두 가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 이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문장으로 대체한다.
- ③ C : 뒤에 이어지는 단락과 내용상의 균형을 고려하여, 공간형 방식의 장점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한다.
- ④ D : 내용의 흐름을 고려하여 '한편'으로 고친다.
- ⑤ E : 문장 성분 사이의 호응을 고려하여, '음식이 순서에 따라 나오거나 음식을 익혀가며 먹는'으로 고친다.

13. <보기>는 띄어쓰기 사례를 사전에서 조사한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추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 보 기 > —

- 어제 ㉠ 김 사장과 만났다.
- 자동차가 ㉡ 쏘살같이 달린다.
- 구름에 달 ㉢ 가듯이 가는 나그네.
- 명주는 ㉣ 무명만큼 질기지 못하다.
- ㉤ 정직한 사람은 결코 손해를 보지 않는다.

- ① ㉠으로 보아, '박 과장, 이 대리'라고 써야 할 거야.
- ② ㉡처럼 '쏘살같이'를 붙여 쓰니까, "부모님과같이 가다."의 '부모님과같이'도 붙여 써야 해.
- ③ ㉢의 사례로 볼 때, '비 온 후에 죽순이 돋듯이'의 '돋듯이'도 붙여 써야 해.
- ④ ㉣로 보아 "나도 너만큼 할 수 있다."의 '너만큼'도 붙여 써야 해.
- ⑤ ㉤의 사례로 볼 때, '아름다운 꿈, 멋있는 사람'처럼 띄어 쓰는 것이 옳아.

14. 문맥에 가장 잘 어울리는 어휘를 고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겸재 정선은 가세가 (① 몰락한/전락한/타락한) 양반 가문 출신이다. 어려서부터 그림에 (특출한/탁월한/② 각별한) 재주가 있었던 그는 벼슬길에 올라 화가로서는 드물게 (개혁적/③ 파격적/혁신적)으로 높은 벼슬을 지냈다. 또한 예술을 즐기는 당대의 문인들과도 가깝게 지냈는데, 이는 그의 작품 세계를 넓히는 (견인력/구심력/④ 원동력)이 되었다. 그의 작품 세계는 정선 화풍의 형성기인 50대 전반까지의 제1기, 정선 화풍의 완성기인 60대 후반까지의 제2기, 세련미의 절정을 이루는 80대까지의 제3기로 구분되는데, 말년으로 갈수록 그 깊이가 더해져 (능숙한/⑤ 완숙한/정숙한) 경지를 보여준다.

[15~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젊은이는 다시 가게 안쪽에 숨겨 놓은 비밀 집합사에서 새 새들을 꺼내다가 비워진 장들을 채워 넣고 있었다. 사내로선 물론 가게 안에 차려진 집합사에 새들이 몇 마리쯤 숨겨져 있는지 들여다볼 기회가 한 번도 없었지만, 젊은이는 아마도 그 비밀 집합사에 새가 바닥이 나게 버려 두는 일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았다. 특히나 오전 동안엔 젊은이가 바깥 새장을 비워 두는 일이란 절대로 없었다. 가게 안 비밀 집합사엔 언제나 여분의 새들이 얼마든지 비워진 장을 채우게 될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젊은이가 비밀 집합사를 들어갔다 오면 두 마리고 세 마리고 그의 손아귀엔 언제나 그가 필요한 수만큼의 새들이 움켜져 나왔다.

이날도 젊은이는 벌써 스무 개 이상의 빈 새장을 새로 채워 넣고 있었다.

사내는 계속 다시 채워진 새장 앞에서 자신의 충동을 견뎌 내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 한 새장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사내가 무슨 버릇처럼 한 새장 문을 손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자 장 속의 새가 포르륵 날개를 퍼덕여 그의 손가락 쪽으로 날아와 붙었다.

사내가 손가락을 좀더 깊숙이 장 속으로 디밀었다. 그러자 다시 장 속의 새는 녀석의 조그만 부리로 사내의 손가락 끝을 조심스럽게 한두 번 콧콕 쪼아대는 시늉이더니, 나중에는 겁도 없이 훌쩍 그 손가락 위로 몸을 날려 내려앉았다. 그리고 꼬지를 가볍게 간들거리며 조그만 눈망울로 말뚱말뚱 그의 표정을 살피고 있었다.

사내는 한동안 거의 넋을 잃은 듯한 얼굴로 장 속의 새 앞에 못박혀 서 있었다. 사내의 초라한 입가에 이윽고 누런 웃음이 번졌다. 그리고 거기서 그 사내의 오랜 기다림이 끝났다.

“그래, 나도 이제 네놈을 알아볼 수 있구말구…….”

사내는 혼잣말처럼 낮게 중얼거리고 나서, 다시 가갯집 젊은이를 향해 자랑스럽게 말했다.

“내 오늘은 이 녀석을 사 주겠소.”

그는 곧 야전잠바 주머니를 뒤져 동전 스무 닢을 세어 내놓고 나서, 이제 젊은이의 응낙을 기다릴 것도 없이 스스로 새장 문을 따기 시작했다.

그는 열린 장문 사이로 손을 디밀어 녀석을 조심스럽게 손바닥에 싸안았다. 그리고 무슨 소중한 물건이라도 다루듯 자신의 코 앞까지 녀석을 높이 치올려 들고는 사람에게 하듯이 중얼 중얼 말했다.

“하지만 이제 알아 두거라. 여긴 네놈들에게 그리 즐겨할 곳이 못된다는 걸 말이다. 그래 나도 이제 네놈한테 마지막일 테니 이번엔 좀 날개가 저리도록 멀찌감치 하늘을 날아가 보거라…….”

손안에 든 새가 사내를 재촉하듯 날개를 두어 번 퍼덕대고 있었다.

그러자 사내도 이제 그만 녀석을 놓아줄 자세를 취했다. 퍼덕여 대는 녀석의 양 날개 밑으로 손끝을 집어넣어 녀석을 높이 받쳐 올렸다. 그리고 그가 뭔가 혼잣말 같은 것을 입속으로 중얼대며 녀석을 막 놓아주려던 참이었다.

사내는 금세 뭐가 이상해졌는지 숲으로 놓아주려던 녀석을 다시 가슴팍 밑으로 끌어내렸다. 그리고는 녀석의 날개를 들추고 벌어진 날갯죽지 밑을 유심히 살폈다.

사내가 들춰낸 녀석의 양쪽 날개 밑엔 ㉠무슨 가위 같은 물건으로 속깃을 잘라낸 자국이 역력했다.

사내는 일순 그것이 도대체 무엇을 뜻하며 어째서 그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짐작이 안 가는 듯 멍멍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중략>

그는 계속해서 남쪽으로 걸었다. 그리고 그의 등 뒤로 멀어져 가는 ㉡도시의 하늘에서 자신의 지친 발걸음을 재촉할 구실을 구하듯 때때로 고개를 뒤로 돌아보곤 하였다.

“그래 어쨌거나 우리가 녀석을 떠난 건 백 번 천 번 잘한 일이었을 게다. 게다가 이제부터 도시엔 겨울 추위가 몰아닥치게 되거든. 너 같은 건 절대로 그 도시의 추위를 견디지 못한다. 작자도 아마 그걸 알았을 게다. 글썄, 네놈도 그 작자가 암말 못하고 멍청하게 날 바라보고만 있는 꼴을 봐 뒀겠지. 내가 네 놈을 데리고 떠나려 할 때……아, 그야 나도 물론 작자한테 그만한 값을 치르긴 했지만 말이다.”

맞은편 산굽이계로부터 도시를 향해 길을 거꾸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한 패가 사내의 걸을 시끌적하게 떠들고 지나갔다.

사내는 잠시 말을 끊고 그 도시로 들어가는 사람들의 일행을 스쳐 보냈다. 그리고 그들의 말소리가 등 뒤로 멀리 사라져 간 다음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반 해분만이라도 내 그 노역의 품삯을 한사코 주머니 속에 깊이 아껴 뒀던 게 천만다행이었지. 널 데려올 수 있었던 건 순전히 그 돈 덕분인 줄이나 알아라. 하기가 그건 내가 정말로 집엘 닿는 날까지 기어코 안 쓰고 지니려던 거였지만……하지만 난 후회 않는다. 암 후회하지 않구말구. 그까짓 돈이야 몇 푼이나 된다구……이런 물골을 하고 빈손으로 고향길을 찾기는 좀 뭣할지 모르지만, 그런다구 어디 사람까지 변했나……아니, 내 아들녀석도 물론 그런 놈은 아니구.”

사내는 제풀에 고개를 한번 세차게 흔들었다.

가슴 속 녀석이 응답을 해 오듯 발가락을 몇 차례 꼼지락거렸다. 그 바람에 잠시 발길을 멈추고 녀석의 발짓을 느끼고 있던 사내의 얼굴에 만족스런 웃음기가 번지고 있었다.

“그래, 어쨌든 잘했지. 떠난 건 잘했어.”

사내는 다시 발길을 떼 읊기며 말하기 시작했다.

“녀석도 아마 잘했다고 할 거야. 글썄, 이렇게 내가 제발로

너석을 찾아 나섰기에 망정이지 하마터면 우리도 거기서 겨울을 지낼 뻔했질 않았나 말이다.”

그리고 사내는 뭔가 더욱 은밀하고 소중한 자신만의 비밀을 즐기듯 몽롱스런 눈길로 중얼거림을 이어 갔다.

“너도 곧 알게 될 게다. 우리가 함께 남쪽으로 길을 나서길 얼마나 잘했는가를 말이다. 남쪽은 북쪽하곤 훨씬 다르다. 겨울에도 대숲이 푸른 곳이니까. 넌 아마 ㉞ 대숲이 있는 곳이면 겨울도 ㉟ 그만일 테지. 내 너를 그런 대숲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줄 테다. 너석의 집 뒤꼍에도 그런 대숲은 얼마든지 많을 테니까. 암 대숲이야 많구말구……넌 그럼 그 대숲으로 가거라.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내려무나…….”

사내의 얼굴은 이제 황홀한 꿈속을 헤매고 있는 사람의 그것처럼 밝고 행복하게 빛나고 있었다.

- 이청준, 잔인한 도시 -

15. 위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와 ‘젊은이’라는 대립적 인물 간의 갈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② ‘사내’와 ‘새’가 나누는 정감을 묘사하여 따스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 ③ ‘사내’는 따듯하고 인간적인 것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 ④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기 때문에 ‘사내’의 얼굴에는 행복이 담겨 있다.
- ⑤ 서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내’의 혼잣말은 그의 내면을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다.

16. <보기>를 참고하여 위 글에 나타난 ‘새’의 의미를 해석하고자 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은 우화적(寓話的) 성격이 짙은 소설입니다. 우화란 어떤 일을 경계할 목적으로 비유적, 상징적 소재나 표현을 사용하여 만든 이야기라 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독자는 작품 자체의 의미보다는 그것이 암시, 경계하는 바에 주안점을 두고 읽어야 합니다. 새는 일반적으로 자유를 표상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이 글에서는 어떨까요?

- ① 선주 : ‘새’가 돈으로 사고파는 거래의 대상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야. 그렇게 되면 그 자유는 제한적이고 불구의 것이 될 수밖에 없어.
- ② 영기 : 이 글에서 ‘새’는 마음껏 날아갈 수 없게 된 존재로 그려져 있어. 그런 점에서 ‘새’는 구속된 존재임을 보여주는 것 같아.
- ③ 재승 : ‘새’를 멀리 날아가지 못하게 하는 ‘젊은이’는 자유에 대한 억압이나 폭력을 상징하는 존재로 해석할 수 있어.
- ④ 지인 : ‘새’와 ‘사내’의 이미지가 겹쳐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이 글에서 ‘새’는 억압의 굴레에 갇혀 있는 인간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아.
- ⑤ 대현 : ‘새’는 숲에 있기도 하고 비밀 집합사에 갇혀 있기도 해. 이런 점에서 ‘새’는 자유와 구속이라는 존재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어.

17. ㉞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사내’가 느꼈을 충격과 환멸을 짐작케 한다.
- ② ‘도시’라는 공간의 실체를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 ③ ‘사내’의 ‘기다림’이 더욱 심화될 것임을 암시한다.
- ④ ‘가위’와 ‘속깃’의 이미지 대조를 통해 강한 인상을 준다.
- ⑤ ‘젊은이’가 만들어 놓은 ‘비밀 집합사’의 비밀이 폭로된다.

18. 밑줄 친 말이 ㉟의 문맥적 의미와 가깝게 쓰인 것은? [1점]

- ① A : 왜 이렇게 늦은 거야?
B : 눈이 오는 바람에 차가 막혀서 그만.
- ② A : 시간 빼앗아서 미안해.
B : 무슨 소리. 너와 함께 간다면 그만이지.
- ③ A : 어젯밤에 전화 안 받던데?
B : 너무 피곤해서 그만 자리에 쓰러졌지.
- ④ A : 너. 무슨 일이 있었어?
B : 아니. 그 너석 생각만 하면 그만 눈물이 나.
- ⑤ A : 정말 가고 싶지 않단 말이야.
B : 그래? 평양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지.

19. <보기>에서 ㉠와 ㉡가 함축하고 있는 공간적 의미와 가장 가까운 것은?

< 보 기 >

금붕어는 아침마다 말숙한 찬물을 뒤집어쓴다. 떡가루를 흰손을 천사의 날개라 생각한다. 금붕어의 행복은 어항 속에 있으리라는 전설(傳說)과 같은 소문도 있다.

금붕어는 유리벽에 부딪혀 머리를 부수는 일이 없다. 얇전한 수염은 어느새 국경(國境)임을 느끼고는 아담하게 꼬리를 젓고 돌아선다. 지느러미는 칼날의 흉내를 내서도 항아리를 끊는 일이 없다.

아침에 책상 위에 옮겨 놓으면 창문으로 비스듬히 햇볕을 녹이는 붉은 바다를 흘려본다. 꿈이라 가르쳐진 그 바다는 넓기도 하다고 생각한다.

금붕어는 아롱진 거리를 지나 어항 밖 대기(大氣)를 건너서 지나해(支那海)의 한류(寒流)를 끊고 헤엄쳐 가고 싶다. 쓴 매개를 와락와락 삼키고 싶다. 옥도(沃度)빛 해초의 산림 속을 검푸른 비늘을 입고 상어에게 쫓겨다녀 보고도 싶다.

- 김기림, <금붕어> 중에서

- | | |
|-------|----|
| ㉠ | ㉡ |
| ① 어항 | 책상 |
| ② 어항 | 바다 |
| ③ 유리벽 | 책상 |
| ④ 유리벽 | 거리 |
| ⑤ 책상 | 거리 |

[20~2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플라톤은 최선의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무엇보다 먼저 이 세계에 있는 모든 대상들이 지닌 성질을 정확하게 인식해야만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대상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인간 뿐만 아니라 신도 마음대로 어찌지 못하는, 그 자신만의 고유한 성질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은 그 대상을 인식하기 위하여, 우선 ㉠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을 오려 내어 하나의 고정치로 확정지어야 한다. 대상의 바로 이런 고정화된 모습을 플라톤은 이데아(idea)라 부른다.

플라톤의 이데아는 초기 작품에서는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 원숙기의 작품에서는 '진정한 존재, 영원불변한 어떤 실체'로 규정된다.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인간을 예로 들어 보자.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기 위하여 학생·농부·사업가·정치가 등과 같은 특징의 사람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모두에 공통적인, 즉 일반적인 인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된다. 따라서 '개별적 사물의 공통된 모습'으로서의 이데아에 대한 규정은 보편자 개념을 통한 규정이고, 그러한 규정은 대상을 단순히 감각적 차원에서 한번만 경험하고 흘려보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 차원에서 ㉡ 개념 체계의 좌표를 통해 파악하고 정리해 두려는 학문적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이러한 의미에서의 이데아, 즉 한 사물의 보편적 성질만 알면 그 사물에 대해 완전하게 인식하게 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개별적 사물에 대해 완전히 알기 위해서는 그 사물의 이데아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사물만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개별적 특수성에 대해서도 알아야 한다. 사실 플라톤의 초기 작품에 나오는 이데아에 대한 얕은 한 사물의 본질에 대한 학문적 차원에서의 얕은 제공해 줄 수 있어도, 그것의 고유성까지 꿰뚫는 완벽한 얕은 제공해 주지 못한다. 그래서 플라톤은 그의 원숙기에 속하는 작품에서부터 개별자와 연관을 맺고 있는 이데아에 대해 주로 고찰하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새로운 차원의 이데아론은 이데아와 현상계에 대한 비유적 표현 때문에 철학사적으로 가장 심각한 오해를 받아 왔다.

사실 이데아는 영원불변한 실체이고, 현상계의 개체는 그것의 그림자라는 비유적 표현은 일반인들에게는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를 충분히 안고 있다.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 이데아를 안다는 것은 하나의 대상을 학문적 인식 체계 속에서 그 대상이 속해 있는 유개념을 파악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데아의 그림자인 개별자를 안다 함은 이데아라는 보편적 성질과 함께하고 있는 개별자 자체의 고유한 특성에 대한 얕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데아론에는 보편자에 대한 개념적 파악과 개별적 특수성에 대한 내용적 파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이중적 시선이 작용하고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깨달아야만, 우리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이 학문적 인식 체계에서 차지하는 진정한 의의를 알 수 있게 된다.

20.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예를 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 ② 묻고 답하는 방식을 통해 논의를 확장하고 있다.
- ③ 용어나 명제에 대한 설명을 바탕으로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 ④ 개념의 이해와 관련하여 빚어질 수 있는 오해를 경계하고 있다.
- ⑤ 하나의 가설을 세우고 이를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21. 위 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강연을 한다고 할 때, 강연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플라톤 철학의 위대성 - 플라톤의 업적을 중심으로
- ② 플라톤 철학에 대한 인식의 변화 - 이데아 개념을 중심으로
- ③ 플라톤 철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 -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 ④ 사물 간의 관계에 대한 탐구 - 보편성과 개별성을 중심으로
- 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 -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중심으로

22. <보기>는 플라톤의 저서 '향연'에 나오는 대목이다. 위 글에 비추어 볼 때, <보기>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사랑에 관한 것들에 올바르게 도달하거나 인도자에 의해 인도될 수 있는 길은 다음과 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계의 지상적 아름다움에서 출발하여 저편의 아름다움을 목표 삼아 사다리를 오르듯이 끊임없이 한 계단씩 올라가는, 다시 말해, 하나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출발하여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로, 두 개의 아름다운 육체에서 모든 아름다운 육체로, 아름다운 육체에서 아름다운 자기 함양의 노력으로, 아름다운 자기 함양의 노력에서 아름다운 인식으로, 그리하여 그러한 인식들로부터 저 높은 단계의 인식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인식은 피안의 아름다움 자체에 대한 인식이며 궁극적으로 아름다운 것 자체를 직관하는 것입니다.

- ① 보편자로서의 이데아와 그것의 그림자인 개별자는 분리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어.
- ② 사물에 대한 올바른 인식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함양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군.
- ③ 플라톤이 이데아라는 개념을 통해 인식하고자 하는 대상이 지상적인 것이 아니라 천상적인 것임을 깨닫게 해 주는 진술이야.
- ④ 이데아에 대한 올바른 인식은 스스로의 노력보다는 인도자의 도움에 의해 성취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할 수 있군.
- ⑤ 육체적이고 세속적인 사랑보다는 정신적이고 숭고한 사랑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는 점을 말하고 있어.

23. 위 글로 보아 ㉠과 ㉡의 관계를 바르게 설명한 것은? [1점]

- ① ㉠은 ㉡의 구성 요소이다.
- ② ㉠은 ㉡의 전제이다.
- ③ ㉡은 ㉠의 수단이다.
- ④ ㉡은 ㉠의 원인이다.
- ⑤ ㉡은 ㉠을 일반화한 것이다.

[24~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격의 변화가 인간의 주관성에 좌우되지 않고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는 가설이 정통 경제 이론의 핵심이다. 이러한 정통 경제 이론의 입장에서 증권시장을 설명하는 기본 모델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반영한다는 가설로부터 출발한다. 기본 모델에서는 기업이 존재하는 동안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즉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자본의 가격으로 본다. 기업가는 이 내재적 가치를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 그런데 투자를 통해 거두어들일 수 있는 총 이익, 즉 기본 가치를 측정하는 일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익의 크기를 예측할 때 신뢰할 만한 계산과 정확한 판단이 중요하다.

증권시장은 바로 이 기본 가치에 대한 믿을 만한 예측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유용성을 갖는다. 증권시장은 주가를 통해 경제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 즉, 투자를 유익한 방향으로 유도해 자본이라는 소중한 자원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경제 전체의 효율성까지 높여 준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증권시장은 실물경제의 충실한 반영일 뿐 어떤 자율성도 갖지 않는다.

이러한 기본 모델의 관점은 대단히 논리적이지만 증권시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에 대한 적절한 분석까지 제공하지는 못한다. 실제로 증권시장에서는 주식의 가격과 그 기업의 기본 가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투기적 거품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기본 모델로는 설명할 수 없다. 실제로 증권시장에 종사하는 관계자들은 기본 모델이 이러한 가격 변화를 설명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증권시장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고 증권시장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자기참조 모델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자기참조 모델의 중심 내용은, 사람들이 기업의 미래 가치를 읽을 목적으로 실물 경제보다 증권시장에 주목하며 증권시장의 여론 변화를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것이다. 기본 모델에서 가격은 증권시장 밖의 객관적인 기준, 즉 기본 가치를 근거로 하여 결정되는 반면에 자기참조 모델에서 ㉠가격은 증권시장에 참여한 사람들의 여론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증권시장 밖의 객관적인 기준을 분석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꿰뚫어 보려고 안간힘을 다할 뿐이다. 기본 가치를 분석했을 때는 주가가 상승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도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따라 주식을 사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이상한 합리성을 '모방'이라고 한다. 이런 모방 때문에 주가가 변덕스런 등락을 보이기 쉽다.

그런데 하나의 의견이 투자자 전체의 관심을 꾸준히 끌 수 있는 기준적 해석으로 부각되면 이 '모방'도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 모방을 통해서 합리적이라 인정되는 다수의 비전, 즉 '목계'가 제시되어, 객관적 기준의 결여라는 단점을 극복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목계를 통해 미래를 예측하며, 증권시장은 이러한 목계를 조성하고 유지해 가면서, 단순히 실물 경제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자율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

24. 위 글의 논지 전개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기업과 증권시장의 관계를 분석하고 있다.
 - ② 증권시장의 개념을 단계적으로 규명하고 있다.
 - ③ 사례 분석을 통해 정통 경제 이론의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④ 주가 변화의 원리를 중심으로 상이한 관점을 대비하고 있다.
 - ⑤ 증권시장의 기능을 설명한 후 구체적 사례에 적용하고 있다.

25.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증권시장은 객관적인 기준이 인간의 주관성보다 합리적임을 입증한다.
 - ② 정통 경제 이론에서는 가격의 변화가 객관적인 근거를 갖는다고 본다.
 - ③ 기본 모델의 관점은 주가가 자본의 효율적인 배분을 가능하게 한다고 본다.
 - ④ 증권시장의 여론을 모방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주가가 변덕스런 등락을 보이기도 한다.
 - ⑤ 기본 모델은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 기업의 내재적 가치에 주목하지만 자기참조 모델은 증권시장의 여론에 주목한다.

26. 위 글을 읽고 <보기>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1999년 말 A라는 건설한 완구 업체의 총 매출은 적자에 허덕이던 B라는 온라인 판매 경쟁 업체의 400배가 넘었지만, 증권시장에서의 자본 평가는 B사의 1/4에 불과했다. 이처럼 기묘한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증권시장은, "앞으로 전자 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며, 인터넷 관련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사람들이 주식을 거래했다."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 ① A가 B보다 기본 가치가 큰 업체라고 볼 수 있다.
- ② 증권시장이 '자율성'을 갖는 것처럼 보이는 예이다.
- ③ '증권시장이 내놓은 분석'은 기본 모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 ④ 증권시장 참여자들은 기본 가치보다는 증권시장의 여론을 따랐을 것이다.
- ⑤ '이처럼 기묘한 상황'은 주가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충실히 반영하지 못한 것을 보여 준다.

27. ㉠을 <보기>와 같이 표현해 보았다. 빈칸에 들어갈 어휘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보 기 >

가격은 여론의 ()에 달려 있다.

- ① 반향(反響) ② 비준(批准) ③ 상충(相衝)
- ④ 진퇴(進退) ⑤ 향배(向背)

28. 위 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자기참조 모델에 따르면 증권시장은 ()

- ① 합리성과 효율성이라는 경제의 원리가 구현되는 공간이다.
- ② 기본 가치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금융시장이다.
- ③ 객관적인 미래 예측 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금융시장이다.
- ④ 기업의 주가와 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일치시켜 나가는 공간이다.
- ⑤ 투자자들이 목계를 통해 자본의 가격을 산출해 내는 제도적 장치이다.

[29~3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유치환, 거제도(巨濟島) 둔덕(屯德)골

거제도 둔덕골은
팔대(八代)로 내려 나의 부조(父祖)의 살으신 곳
적은 골 안 다가솟은 산방(山芳)산 비탈 알로
몇백 두락 조약돌 박토를 지켜
마을은 언제나 생겨난 그 외로운 앓음새로
㉠ 할아버지 살던 집에 손주가 살고
아버지 갈던 밭을 아들네 갈고
베 짜서 옷 입고
조약 써서 병 고치고
그리하여 세상은
허구한 세월과 세대가 바뀌고 흘러갔건만
사시장천 벗고 섰는 뒷산 산비탈모양
두고두고 행복된 바람이 한 번이나 불어 왔던가
시방도 신농(神農) 적 벼들에 질쌘하고
바가지에 밥 먹고
갓난것 데불고 툭툭 털며 사는 칠촌(七寸) 조카 젊은 과수며느리며
비록 갓망건은 벗었을망정
호연(浩然)한 기풍 속에 새끼 꼬며
시서(詩書)와 천하를 논하는 왕고못댁 왕고모부며
가난뱅이 살림살이 견디다간 뿌리치고
만주로 일본으로 뛰었던 큰집 젊은 증손이며

㉡ 그러나 끝내 이들은 손발이 장기처럼 닳도록 여기 살아
마지막 누에가 고치 되듯 애석도 모르고
살아 생전 날세고 다니던 밭머리
부조(父祖)의 뒷가에 부조(父祖)처럼 한결같이 묻히리니

아아 나도 나이 불혹(不惑)에 가까웠거늘
슬플 줄도 모르는 이 골짜기 부조(父祖)의 하늘로 돌아와
일출이경(日出而耕)하고 어질게 살다 죽으리

(나) 이성부, 무등산(無等山)

㉢ 룻대가 높지 않고 키가 크지 않아도
자존심이 강한 산이다.
기차를 타고 내려가다 보면
그냥 밋밋하게 뻗어 있는 능선이,
너무 넉넉한 팔로 광주를 그 품에 안고 있어
내 가슴을 뛰게 하지 않느냐.

┌ 기쁨에 말이 없고,

[A] 슬픔과 노여움에도 쉽게 저를 드러내지 않아,

└ 길게 돌아누워 등을 돌리기만 하는 산.

㉣ 태어나면서 이미 위대한 죽음이었던 산.

무슨 가슴 큰 역사를 그 안에 담고 있어
저리도 무겁고 깊게 잠겨 있느냐.
저 산이 입을 열어 말할 날이
이제 이를 것이고,
저 산이 몸을 일으켜 나아갈 날이
이제 또한 가까이 오지 않았느냐.
저 산에는
항상 어디 ㉠ 한구석 비어 있는 곳이 있어,
내 서울을 떠나기만 하면
그곳이 나를 반가이 맞아 줄 것만 같다.

(다) 박인로, 누항사(陋巷詞)

와실(蝸室)에 들어간들 잠이 와서 누웠으랴 북창(北窓)을 비껴
안자 새벽을 기다리니 무정(無情)한 대승(戴勝)은 이내 한(恨)
을 돕는도다 종조 추창(終朝惆悵)하야 먼 들흘 바라보니 ㉡ 즐
기는 농가(農歌)도 흥(興) 업서 들리도다 세정(世情) 모른 한숨
은 그칠 줄을 모르도다 아까운 저 소위는 벗보님도 도흘시고 가
시 영긴 묵은 밧도 용이(容易)케 갈련마는 허당반벽(虛堂半壁)
에 슬데업시 걸리고야 춘경(春耕)도 거의거다 후리쳐 던져 두자
강호(江湖) 한 꿈 꾸 지도 오래러니 구복(口腹)이 위루(爲累)하
야 어지버 잊었도다 침피기옥(瞻彼淇澳)한대 녹죽(綠竹)도 하도
할샤 유비군자(有斐君子)들아 낙대 하나 빌려사라 ㉢ 노화(蘆
花) 기픈 곳에 명월청풍(明月清風) 벗이 되야 님재 업산 풍월강
산(風月江山)에 절로절로 늘그리라

2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에는 화자의 자기 반성이 드러나 있다.
- ② (가)와 (다)에는 화자가 지향하는 바가 나타나 있다.
- ③ (나)와 (다)의 화자는 현실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의 화자는 자신의 삶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⑤ (가)~(다)의 화자는 현실을 변화시키려는 의지를 지니고 있다.

30. (가)에 대한 해석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거제도 둔덕골’이 시인의 고향이라는데, 그렇다면 이 시의 화자는 시인 자신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 ② ‘팔대(八代)’로부터 ‘나’까지 살았다는 표현으로 보아 거제도 둔덕골은 근원적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
- ③ ‘행복된 바람이 한 번이나 불어 왔던가’는 물질적 여유를 누리지 못한 둔덕골 사람들의 삶을 드러내는 것이 아닐까?
- ④ ‘왕고못댁 왕고모부’는 의연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 ⑤ ‘큰집 젊은 증손’의 행동에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31. 밑줄 친 시어들 중, 그 이미지가 [A]의 ‘산’과 유사한 것은?

- ① 우리 모두를 / 백두산에 올라가게 하라 / 오로지 한 줄기 빛 / 우리의 백두산이여 / 사랑이 넘쳐라 / 온 산천에 해가 솟는다 / 우리만의 해가 솟는다 - 박봉우, <백두산>에서
- ② 그는 나에게 하늘의 / 별을 하나 주었다. / 새벽이 오고, 햇발이 깃을 치며 / 저만큼서 다가오고 있을 때 / 나는 그 별을 / 깊이깊이 삼켰다. - 이태수, <그는 다시 나에게>에서
- ③ 그리웠던 순간들을 생각하며 나는 / 한 줌의 톱밥을 불빛 속에 던져 주었다. / 내면 깊숙이 할 말들은 가득해도 / 청색의 손바닥을 불빛 속에 적셔 두고 /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 광재구, <사평역에서>에서
- ④ 타는 노을 이글대는 하늘 밑에서 / 오곡백과는 머리를 숙여 말이 없다. / 거친 풀잎들도 몸만 흔들 뿐 / 뿌리 깊이 내려 말이 없다. / 내가 밟는 이 들판은 / 비가 와도 눈이 와도 / 바람이 불어도 언제나 누워서 / 우리들을 견게 할 뿐 / 타하지 않는다. - 조태일, <들판을 거닐며>에서
- ⑤ 불귀(不歸), 불귀(不歸), 다시 불귀(不歸), / 삼수갑산에 다시 불귀(不歸). / 사나이 속이라 잊으련만, / 십오 년 정분을 못 잊겠네. // 산에는 오는 눈, 들에는 녹는 눈. / 산새도 오리나무 / 위에서 운다. - 김소월, <산>에서

32. ㉠~㉡ 중,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관련 깊은 진술은? [1점]

< 보 기 >

작가는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진술에서 벗어난 시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독자의 인식에 긴장감을 준다. 그 중에서도 의미상 양립할 수 없는 말을 함께 사용하는 진술은 긴장의 정도를 더욱 높인다. 이러한 진술은 독자로 하여금 그 표현에 숨겨진 의미를 깊이 있게 탐구하게 하는 시적 장치로 작용하게 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3.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이 일시적 존재라면 ㉡은 지속적 존재다.
- ② ㉠에서는 공허함이, ㉡에서는 충족감이 느껴진다.
- ③ ㉠은 화자의 갈등을 유발하고 ㉡은 이를 해소한다.
- ④ ㉠과 ㉡ 모두 청자를 작품 속에 개입시킨다.
- ⑤ ㉠과 ㉡ 모두 화자와의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34. (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화자는 생활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 ② 자연물을 통해 화자의 정서가 부각되고 있다.
- ③ 화자는 세상 물정을 몰랐음을 자탄하고 있다.
- ④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인생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과 동화하여 살아가고 싶은 소망이 드러나 있다.

[35~3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H₂O.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된 것. 물은 이처럼 간단한 화합물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화합물이기도 하다.

우선, 물은 비정상적이라고 할 만큼 끓는점이 높다. 일반적으로 같은 족에 속하는 원소들은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지니며, 그들의 끓는점은 원자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이는 산소족에 속하는 원소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즉, 산소, 황, 셀레늄, 텔루르 등의 순으로 끓는점이 높아진다. 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소와 결합하여 물, 황화수소, 셀레늄화수소, 텔루르화수소 등의 수소화합물을 이루며, 이들 화합물의 끓는점은 대체로 구성 원소의 원자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진다. 그런데 유독 물의 경우에는 끓는점이 비정상적으로 높다. 황의 수소화합물인 황화수소(H₂S)의 끓는점이 -59.6℃인데 비해 산소족 원소들 중에서 원자량이 가장 적은 산소의 수소화합물인 물은 끓는점이 100℃나 되는 것이다. 단순히 원칙대로만 따지면, 물의 끓는점은 -80℃정도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물은 다른 물질들에 비해 1℃의 온도를 올리기 위해 필요한 열량, 즉 비열이 대단히 높다. 어떤 물질의 온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양의 열이 필요하다는 말은, 온도가 내려갈 때 그만큼 많은 열에너지를 방출한다는 의미도 된다.

이렇게 물의 끓는점이 높고 비열이 큰 이유는 물분자들 사이의 강한 결합력 때문이다. 물의 단독 분자를 찾으려고 하는 것은 소용없는 일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분자들은 강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집단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온도를 높이는 데 많은 열이 필요하며 쉽게 기화되지 않는 것이다.

또한 물은 가장 뛰어난 용매이기도 하다. 물질들을 물속에 넣으면 그 물질의 원자나 분자 사이에 작용하던 힘이 매우 약해져서 쉽게 녹아 버린다. 물이 이렇게 뛰어난 용해력을 갖는 것은 물분자가 자기들끼리 결합하는 힘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의 원자나 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도 역시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물이 지닌 이러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 그것은 ㉠ 물분자가 ‘극성 공유 결합’의 형태로 존재하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일반적인 공유 결합으로 이루어진 분자의 두 핵은 그 사이에 있는 전자들을 동등하게 공유하지만, 극성 공유 결합을 한 분자의 경우에는 전자들이 한쪽의 핵에 더 강하게 끌리게 된다. 이 때문에 분자의 한쪽 끝은 약간의 양전하를 띠게 되고 다른 쪽 끝은 약간의 음전하를 띠게 된다. 양전하를 띠는 부분과 음전하를 띠는 부분이 쉽게 결합한다는 것은 상식이다. 이러한 결합 방식 덕분에, 물분자들끼리의 결합력이 다른 물질의 분자들에 비해 강할 뿐만 아니라, 다른 물질들과도 쉽게 극성 공유 결합을 이룸으로써 그 물질을 용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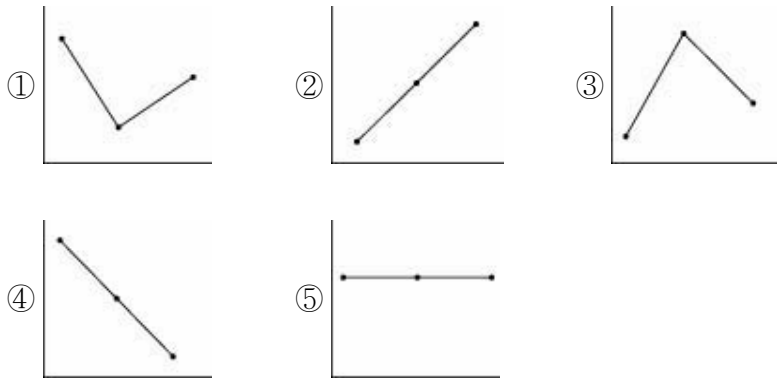
물의 이러한 성질은 생명 현상에 매우 유익한 결과들을 초래한다. 물분자들의 결합력 덕분에 물은 상온에서 기체 상태가 아니라 액체와 고체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더불어 물을 생명 유지의 근간으로 삼고 있는 우리 생물체들도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게다가 물은 비열이 높기 때문에 온도에 민감하지 않다. 즉 항상성이 크다. 그 덕분에 대부분이 물로 채워진 생물체와 지구는 급격한 변화를 겪지 않고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다. 생물체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신진대사 역시 물의 강한 용해력이 없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35. 위 글의 논지 전개 과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대상의 특성 제시 → 원인 분석 → 수반되는 효과 제시
- ② 과제 제시 → 관련 실험의 결과들 소개 → 하나의 이론으로 종합
- ③ 주요 개념 제시 → 현상에 적용한 결과 설명 → 개념의 의미 구체화
- ④ 상반된 이론 제시 → 체험적 사례들에 적용 → 이론들의 타당성 검증
- ⑤ 화제와 관련된 의문점들 제시 → 전문가의 설명 소개 → 의문점 해소

36. [가]의 설명을 바탕으로 ‘물-황화수소-셀레늄화수소’의 끓는점을 그래프로 나타낼 때, 그 그래프의 형태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x축 : 수소화합물을 이루는 원소들의 원자량
y축 : 수소화합물들의 끓는점(온도)

37. 위 글의 논지에 따를 때, <보기>의 견해에 대한 해석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 보 기 >

일반적으로 물분자는 산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 두 개가 결합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 'H₂O'로 나타낸다. 그러나 물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자식은 '(H₂O)_n'이라고 할 수 있다.

- ① 물분자들만이 지닌 용해력을 강조하기 위한 견해이다.
- ② 물분자의 구성 요소들을 분명히 밝히기 위한 견해이다.
- ③ 물분자들의 결합력이 매우 강함을 강조하기 위한 견해이다.
- ④ 물분자의 성질이 매우 불확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견해이다.
- ⑤ 물분자가 형성되는 독특한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견해이다.

38. ㉠을 설명하기 위한 보조 자료로 가장 적절한 것은? [1점]

- ① 햇빛을 흡수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전지
- ② 전류를 흘려 주면 빛을 내는 발광 다이오드
- ③ 다른 극끼리 서로 당기는 성질을 지닌 막대자석
- ④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어 주는 발전기
- ⑤ 전기가 흐르는 도체와 흐르지 않는 부도체의 중간 성질을 지닌 반도체

39. 위 글을 읽고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운 것은 물분자들의 강한 결합력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보면 되겠군.
- ② 화합물의 성질은 구성 원소들의 특징뿐 아니라 결합 방식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알았어.
- ③ 물이 다른 산소족 원소들의 수소화합물과 같은 성질을 가졌다면, 지구상에 생물체가 존재하기 어려웠을 거야.
- ④ 소금쟁이가 물 위를 걸을 정도로 물의 표면장력이 큰 근본적인 이유도 물분자들 사이의 인력이 크기 때문일 거야.
- ⑤ 혈액을 통해서 영양분을 전달하고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 대부분이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었구나.

[40~44]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933년에 완성·발표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오늘날의 정서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기본 정신은 세 향의 총론 중 '한글 맞춤법은 표준말을 그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으로써 원칙을 삼는다'는 제1항에 집약되어 있다. 이 조항은 세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째 어떤 한 방언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공통적인 표준말을 맞춤법 규정의 대상으로 삼는다는 것, 둘째 그 표준말을 되도록 발음에 충실하도록 적는다는 것, 셋째 발음에 충실한 표기가 동시에 어법에도 맞다면 모르되 그렇지 않다면 비록 발음과 거리가 멀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어법에 맞도록 적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이 중 맞춤법이 표준말을 그 규정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은 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맞춤법이란 전국적으로 통일되어 쓰일 표기 체계가 필요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말로 하는 표준 국어'인 표준말을 근거로 삼는다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다음,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보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것은 무엇보다 역사주의를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왜냐하면 1933년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표준말은 '현재 중류 사회에서 쓰는 서울말'이라 규정되어 있는 바, 이 '현재'의 말의 발음을 충실히 표기하면 자연스럽게 예부터 쓰여 오던 관습적인 표기법은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표음문자를 쓰는 나라에서 정서법을 개정할 때 그때까지의 정서법의 전통을 살려야 되느냐 마느냐는 항상 논란이 되는데, 그 전통이 그리 길지 않았고 또 따를 만한 통일된 정서법이 없었던 우리로서는 종래의 관습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어법에 맞도록'이란 조건은 좀 더 세심히 검토해야 한다. 이는 대체로 어떤 형태소의 표기를 그 기본형으로 고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형태소는 그것이 놓이는 자리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음으로 실현되는 일이 많다. 가령 '없다'의 어간 '없-'은 '-으니, -어서'와 같은 어미 앞에서는 '없-'으로 실현되지만, '-다, -지' 앞에서는 '업-', '-네, -는' 앞에서는 '엄-'으로 실현되는 것이 그 일례다. '어법에 맞도록' 적겠다는 것은 바로 이런 주위 환경에 의한 소리의 변이를 맞춤법에 반영하지 않

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원칙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핵심을 이룬다고 할 만큼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비중도 크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원칙은 명사와 조사가 결합하는 경우와 용언이 활용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있이, 있도, 있만'은 전자의 예이고, '덜더라, 덜는다, 읽더라, 읽는다' 등은 후자의 예이다. 그러나 불규칙 활용의 경우에는 '어법에 맞도록'의 원칙을 따르지 않고 '소리대로'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만일 '짓었다, 덤으니, 들으면' 등으로 적으면 규칙 활용의 '벗었다, 입으니, 믿으면'과 관련되어 잘못 읽힐 위험이 있어 취해진 방편적 조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결국 '어법에 맞도록' 적겠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고정된 형태를 보여 주는 것이 눈에 빨리 들어오고 그만큼 의미를 빨리 파악시키는 것이기에 <한글 맞춤법 통일안>의 이 규정은 정당하고 합리적이라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글 맞춤법 통일안>은 '소리대로'의 원칙과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을 적절히 조화시킨 것으로 이해된다.

40. 위 글로 미루어 짐작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통일된 맞춤법을 제정하려는 것은 의사소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시도라고 볼 수 있어.
- ②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원칙을 통해 언어는 문법적 규칙성을 지니고 있음을 추리할 수 있어.
- ③ 불규칙 활용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특정한 언어 현상을 하나의 원리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어.
- ④ 표음 문자를 사용하는 나라에서 정서법을 개정하는 것은 언어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때문일 거야.
- ⑤ 통일된 맞춤법 이전에 다양한 표기법이 공존했다는 사실에서 문자와 의미 사이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

41. <보기>의 입장에서 맞춤법의 개정 방향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때, 그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문자는 말소리에 비해 보수적이다. 말소리는 끊임없이 변하는데 문자는 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이다. 이는 오랫동안 눈에 익숙해져 있던 표기법의 변화는, 의식되지 않게 진행되는 말소리의 변화에 비해 일종의 개혁으로 인식되기 때문에 오는 현상이다. 결국 애초에는 발음에 충실하던 표기법이 어느 사이에 그 발음과 괴리를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문자와 말소리의 괴리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 할 만한 것이다.

- ① 말의 의미 변화를 정확하게 진단하여 표기법에 반영해야 합니다.
- ② 맞춤법을 개정할 때는 발음과 문자 사이의 괴리를 인정해야 합니다.
- ③ 표기법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우리말 체계의 혼란을 막아야 합니다.
- ④ 원칙이 자주 바뀌면 혼란스러우므로 '소리대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합니다.
- ⑤ 표기법의 변화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다양한 표기법을 인정해야 합니다.

42. <보기>를 반박하는 글을 쓰려 할 때, 제시할 수 있는 논거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한글은 근본적으로 표음 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춤법은 '소리대로'에 충실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말 맞춤법은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규정을 두어 현실의 소리에서 멀어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 ① 단어의 의미는 문자의 형태보다 그 단어가 쓰이는 문맥에 의해서 결정된다.
- ② '소리대로'에 충실한 표기가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보다 배우기에 쉽다.
- ③ 빠른 정보 처리가 필요한 컴퓨터에서는 '소리대로'에 충실한 표기가 더 효율적이다.
- ④ '소리대로'보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법이 시각적으로 뜻을 파악하기가 더 쉽다.
- ⑤ '어법에 맞도록'에 충실한 표기는 '소리대로'에 충실한 표기보다 더 많은 개수의 문자를 필요로 한다.

43. 다음은 1988년 개정되어 현재 쓰이고 있는 맞춤법의 개정 사례이다. 이 글에 비추어 ㉠~㉣에 적용된 원리를 바르게 묶은 것은? [1점]

<한글 맞춤법 통일안> (1933년 제정)		<한글 맞춤법> (1988년 제정)
먹읍니다	㉠	먹습니다
더우기	㉡	더욱이
아름다와	㉢	아름다워

- | | | | |
|---|-----------|-----------|-----------|
| | ㉠ | ㉡ | ㉢ |
| ① |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 '소리대로' |
| ② | '어법에 맞도록' | '소리대로' | '소리대로' |
| ③ | '소리대로' |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
| ④ | '어법에 맞도록' | '어법에 맞도록' | '소리대로' |
| ⑤ | '어법에 맞도록' | '소리대로' | '어법에 맞도록' |

44. <보기>를 참고할 때, <파악시키는>과 같이 '-시키다'를 붙인 말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 보 기 >

'-시키다'는 서술성이 있는 일부 명사 뒤에 붙어, 남에게 어떤 동작이나 행동을 하게 하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로 쓰인다. 요즘 뜻을 분명하게 하려는 심리에서 '-하다' 대신에 '-시키다'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국어의 본래 모습을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 ① 사나운 개는 진정시키지 않으면 사람을 물 수도 있다.
- ② 큰 회사일수록 외부인 출입을 금지시키는 구역이 많다.
- ③ 병원에 가지 않으려는 아내를 입원시키고 오는 길이야.
- ④ 다투고 있는 저 두 사람을 화해시킬 묘안이 뭐 없을까?
- ⑤ 그 선생님의 제자에 대한 사랑은 많은 사람을 감동시켰다.

[45~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번 겨울은 소대한 추위를 모두 천안 삼거리 마른 능수버들 아래 맞았다. 일이 있어 충청도 진천으로 가던 날에 모두 소대한이 들었던 것이다. 나는 공교로이 타관 길에서 이런 이름 있는 날의 추위를 떨어가며 절기라는 것의 신묘한 것을 두고두고 생각하였다. 며칠내 마치 봄날같이 땅이 슬슬 녹이고 바람이 폭석하니 불다가도 저녁결이나 밤 사이 날새가 갑자기 차지는가 하면 으레 다음날은 대한이 으등등해서 왔다. 그 동안만 해도 제법 ㉠ 봄비가 뚝뚝 내음새를 피우며 나리고 땅이 녹녹하니 **맘***이 돌고 해서 이제는 분명히 봄인가 했는데 간밤 또 갑자기 바람결이 차지고 눈발이 날리고 하더니 아침은 또 쫑쫑하니 날새가 매찬데 아니나다를까 입춘이 온 것이다. 나는 실상 해보다는 달이 좋고 아침보다 저녁이 좋은 것 같이 양력보다는 음력이 좋는데 생각하면 오고가는 절기며 들고나는 밀물이 우리 생활과 얼마나 신비롭게 얽혀있는가. 절기가 뜰 적마다 나는 고향의 하늘과 땅과 사람과 눈과 비와 바람과 꽃들을 생각하는데 자연이 시골이 아름답듯이 세월도 시골이 아름답고 사람의 생활도 절대로 시골이 아름다울 것 같다.

이번 입춘이 먼 산 너머서 강 너머서 오는 때 우리 시골서는 이런 이야기가 왔다. 우리 고향서 제일가는 부자가 요즈음 저 혼자 밤에 남포불 아래서 술을 먹다가 남포가 터지면서 불이 옷에 닿아 그만 타 죽었다 했다.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사람인데 술을 먹되 누구와 같이 동무해 먹지 않았고 전등이나 켜지 않았는지 남포를 켜다가 변을 당했다고 하는 시비가 이야기에 덧붙여 왔다. 또 하나는 역시 우리 고향에서 한때는 남의 셋방살이를 하며 좁쌀도 되술로 말아먹고 지내던 사람이 금광에 돈을 모으고 얼마 전에는 자가용 자동차를 사들였다는 이야긴데 여기에는 또 어떤 분풀이 같은 기운이 말끝에 채이었다.

오는 입춘과 같이 이런 이야기를 맞으며 나는 생각했다. 내 시골서는 요즈음 누구나 다들 입이 빠치거나 숨씨를 써 가며 이 이야기들을 할 것인데 그럴 때마다 돈과 목숨과 생활과 경우와 운수 같은 것에 대해서 킁킁하니 분명치 못한 생각들이 때로는 चु케 때로는 더옹게 그들의 마음의 바람벽에 바람결같이 부딪치고 지나가는 즈음에 입춘이 마을 앞벌에 마을 어귀에 마을 안에 마을의 대문간들에 온 것이라고.

이런 고향에서는 이번 입춘에도 몇 번이나 ‘보리 연자 갔다가 얼어 죽었다’는 말을 하며 입춘이 지나도 추위는 가지 않는다고 할 것인가. 해도 입춘이 넘으면 양지 바른 둔덕에는 머리칼풀의 속움이 트는 것이다. 그러기에 입춘만 들면 한겨울 내 친했던 창애와 썰매와 발구며 꿩, 노루, 토끼에 멧돼지며 매, 멧새, 출출이들과 떠나는 것이 섭섭해서 소년의 마음은 흐리었던 것이다. 높고 무섭고 쓸쓸하고 슬픈 겨울이나 그래도 가깝고 정답고 흥성흥성해서 좋은 겨울이 그만 입춘이 와서 가 버리는 것이라고 소년은 슬펐던 것이다.

그런 소년도 이제는 어느덧 가고 ㉡ **외투와 장갑과 마스크**를 벗기가 가까워서 서글픈 마음이 없듯이 겨울이 가서 슬퍼하는 슬픔도 가 버렸다. 입춘이 오기 전에 벌써 내 ㉢ **썰매**도 노루도 멧새도 다 가 버린 것이다.

입춘이 드는 날 나는 공일 무휴(空日無休)*의 오피스에 지각을 하는 길에서 겨울이 가는 것을 섭섭히 여기지 못했으나 봄이 오는 것을 즐거이 여기지는 않았다. 봄의 그 현란한 낭만과 미앞에 내 육체와 정신이 얼마나 약하고 가난할 것인가. 입춘이 와서 봄이 오면 나는 어쩐지 까닭 모를 패부(敗負)의 읍울(悵鬱)*을 느끼어야 할 것을 생각하면 나는 차라리 입춘이 없는 세

월 속에 있고 싶다.
- 백석, <입춘(立春)>

* 맘 : 아지랑이
* 공일 무휴(空日無休) : 쉬는 날이지만 쉬지 못함.
* 패부(敗負)의 읍울(悵鬱) : 패배에 대한 근심으로 마음이 답답함.

45.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체험을 바탕으로 지나온 삶을 성찰하고 있다.
 - ② 변화하는 계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묘사하였다.
 - ③ 절기의 변화에서 유발되는 상념들을 서술하고 있다.
 - ④ 계절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정서적 태도가 드러나 있다.
 - ⑤ ‘소년’이라는 표현은 작가의 의도적인 거리두기가 내포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6. [가]와 같은 이야기를 소개한 의도를 바르게 추리한 것은?
- ① 올바른 삶의 자세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 ② 갈수록 간절해지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여 드러낸다.
 - ③ 새로운 문물들이 들어와 달라진 고향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낸다.
 - ④ 자연의 변화와 인간 삶의 양상이 조응(調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⑤ 엇갈린 두 사람의 운명을 통해서 인생은 예견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47. 위 글의 작가가 쓴 시에서 ‘비’를 표현한 구절을 뽑아 보았다. 발상과 표현이 ㉠과 가장 유사한 것은?

- 소라 방동이 붉으레한 마당에 김 냄새 나는 비가 내렸다.
-‘통영(統營)’-----①
- 백중 물을 내는 소내기를 함뻍 맞고 호주를하니 젖어서 달아나는데
-‘칠월백중’-----②
- 실 같은 봄비 속을 타는 듯한 여름별 속을 지나서
-‘국수’-----③
- 이방(異邦) 거리는 / 비오듯 안개가 나리는 속에 / 안개 같은 비가 나리는 속에
-‘안동(安東)’-----④
- 캄캄한 비 속에 / 새빨간 달이 뜨고 / 하이얀 꽃이 튀고
-‘야우소회(夜雨小懷)’-----⑤

48. ㉠과 ㉡의 의미를 파악하여 항목별로 정리한 내용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	㉡
① 시간	현재	과거
② 공간	도회지	고향
③ 삶의 양상	생활에의 구속	자유롭고 즐거움
④ 내포된 심리	무감각	상실감
⑤ 이미지(분위기)	현란함	흥성함

[49~5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음악은 비물질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비물질성은 음악을 만드는 소리가 물질이 아니며 외부에 존재하는 구체적 대상도 아니라는 점에 기인한다. 소리는 물건처럼 눈에 보이는 곳에 있지 않고 냄새나 맛처럼 그 근원이 분명하게 외부에 있지도 않다. 소리는 어떤 물체의 진동 상태이고 그 진동이 공기를 통해 귀에 전달됨으로써만 성립한다. 음악의 재료인 음 역시 소리가기 때문에 음악은 소리의 이러한 속성에 묶여 있다.

소리의 비물질성은 인간의 삶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남기게 된다. 악기가 발명될 무렵을 상상해 보자. 원시인은 줄을 튕기거나 서로 비빔으로써, 나뭇잎을 접어 불거나, 가죽을 빈 통에 썩워 두드림으로써 소리를 만들었다. 이때 그들은 공명되어 울려 나오는 소리에 당황했을 것이다. 그 진원지에서 소리를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공명 장치의 울림을 음향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공명 장치 뒤에 영적인 다른 존재가 있다고 믿었을 것이다. 따라서 소리의 주술성은 소리의 진원이 감각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음악 역시 주술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믿었다. 고대 수메르 문명에서는 ㉠ 풀피리 소리가 곡식을 자라게 하고, 북 소리가 가축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믿었다. 풀피리는 풀로, 북은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힘을 가졌다고 생각한 것이다. 재료를 통한 **질료적 상징**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상상과 믿음은 발전하여 음악에 많은 상징적 흔적을 남기게 된다. 악기의 모양과 색깔, 문양뿐 아니라 시간과 공간에 이르기까지 상징적 사고가 투영되었다. 문묘와 종묘의 제사 때에 쓰이는 제례악의 연주는 악기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시간을 지키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중국이나 우리나라 전통 음악에서의 음의 이름[음명(音名)]과 체계는 음양오행의 논리적 체계와 연관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타악기는 성적 행위를 상징하는데, 이로 인해 중세의 기독교 문명권에서는 타악기의 연주가 금기시되기도 하였다.

소리와 음이 비물질적이라는 말은, 소리가 우리의 의식 안의 현상으로서만 존재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의식 안에만 있는 소리와 음은 현실의 굴레에서 벗어나 있다. 소리는 물질의 속박인 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반면, 춤은 중력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한다. 춤은 음악의 가벼움을 그리워하고 음악은 춤의 구체적 형상을 그리워한다. 따라서 음악은 춤과 만남으로써 시각적 표현을 얻고 춤은 음악에 얹힘으로써 가벼움의 환상을 성취한다.

음악의 비물질성은 그 자체로서 종교적 위력을 가진 큰 힘이기도 하였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정치와 제사가 일치되었던 시기에 권력을 장악했을 것이다. 소리 뒤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의 세계는 음악가들에 의해 지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제정일치의 정치 구조가 분열되어 정치와 제사가 분리되고 다시 제사와 음악이 분리되는 과정을 거쳤던 고대 이집트 문명에서 우리는 이를 확인할 수 있다.

49. 위 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 ① 음악의 비물질성은 그 재료의 비물질성에서 비롯된다.
- ② 음악의 상징성은 음악의 비물질성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 ③ 음악에 대한 고대인들의 믿음은 논리적 체계를 이루고 있었다.

- ④ 장르적 속성으로 보아 음악과 춤은 상보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 ⑤ 제정일치 사회에서 음악가는 영혼의 세계를 지배하는 존재로 여겨졌다.

50. 위 글의 서술 전략과 관련이 없는 것은?

- ① 개념의 변화 과정을 분석하여 가설을 입증한다.
- ② 비유적 진술과 대조를 통해 표현의 효과를 살린다.
- ③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여 견해의 타당성을 제고한다.
- ④ 핵심 개념을 설명하고 그에 근거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 ⑤ 상상을 통해 추정하여 내린 결론을 사례를 통해 입증한다.

51. <보기>는 인도 설화의 내용이다. 위 글과 관련지어 바르게 감상한 것은? [3점]

< 보 기 >

위대한 가수 탄센은 황제 악바르의 측근이다. 그는 동료의 미움을 사게 되고 그의 적들은 그를 제거할 계획을 세운다. 그들은 황제에게 간청하여 탄센이 등불의 라가*인 ‘라가 디팍’을 부르게 한다. 탄센은 감히 황제의 명령을 거역하지 못하고 라가 디팍을 부른다. 궁중의 등불은 하나씩 켜지기 시작하고 탄센은 몸이 너무 뜨거워져서 강물 속으로 옮겨 연주를 계속한다. 곧이어 강물이 끓기 시작했고 탄센은 끓는 물에 삶겨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탄센의 친구가 탄센의 연인에게 달려가 이 위급한 상황을 전했고, 그녀는 즉시 비의 라가인 ‘라가 말라르’를 연주하였다. 그러자 하늘에서 억수같이 비가 쏟아져 그를 구했다.

* 라가 : 고대 인도의 음악

- ① 음악에 대한 주술적 믿음이 종교로 발전하고 있음을 짐작하게 해.
- ② 현실에서 자유로운 음악의 속성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생각돼.
- ③ 음악은 실재 세계를 상징한다는 사고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
- ④ 음악 세계의 논리가 현실의 논리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 같아.
- ⑤ 제정일치의 정치 구조가 분열되면서 제사와 음악이 분리되는 과정을 보여 주고 있어.

52. ㉠으로 보아 ‘질료적 상징’에 가장 가까운 것은?

- ① 장례식에서는 엄숙한 곡조의 음악을 연주한다.
- ② 상을 당한 사람은 흰색이나 검은색의 옷을 입는다.
- ③ 병을 치료하기 위해 건강한 사람의 초상화를 그린다.
- ④ 어떤 원시 부족은 사냥을 나가기 전에 모두 모여 춤을 춘다.
- ⑤ 사냥할 때의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 호랑이 발톱을 지니고 다닌다.

[53~5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구정광 다라니경〉 두루마리에 사용된 한지(韓紙)는 1200년 전 경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현대 서구식 제지 방식으로 만든 종이의 수명을 길게 잡아 100여 년 남짓이라고 할 때, 한지의 수명은 대단히 긴 것이다. 한지의 보존성이 이렇게 탁월한 이유는 한지의 강도가 높다는 점과 한지가 중성지라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이 같은 한지의 특성은 원료와 제조 과정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주원료인 다펜의 껍질은 섬유 길이가 10mm 내외이다. 긴 섬유가 서로 엉겨 종이를 구성하므로 종이의 강도가 높다. 이에 비하여 나무의 목질부를 기계적으로 가공한 서양 펄프는 섬유 길이가 3~5mm로 현저히 짧다. 한지를 만들기 위해 1년생 다펜을 11월과 2월 사이에 채취하는데, 이 시기의 다펜은 종이 제조에 불필요한 리그닌 함유량은 적고, 종이의 원료가 되는 셀룰로오스 함유량은 많다. 또한, 겨울의 차가운 물에서 제조하기 때문에 미생물이 발생할 가능성을 줄여 종이의 변질을 예방한다.

증기로 찌거나 삶은 다펜의 껍질에서 겉껍질을 벗긴 것을 백피라고 한다. 이것이 실질적인 종이 원료이다. 이 백피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삶는데, 이 때 표백제로 잿물을 넣는다. 잿물은 벗짚, 콩대, 메밀대 등을 태운 재로 만드는데, 주성분이 산화칼륨으로 표백력은 강하지 않으나 다펜유를 손상시키지 않는다. 6~7시간 정도 삶은 백피를 흐르는 물에 씻은 뒤 일주일 정도 물속에 담가 놓는다. 물속에서 햇빛의 작용으로 오존, 과산화수소가 발생하여 산화 표백되는 것이다. 이 때 사용하는 물에 철분이 함유되어 있으면 종이의 산화를 촉진하므로, 한지 제조 과정에서는 철분기가 없는 물을 사용한다.

표백, 세척한 백피를 돌 위에 올려놓고 나무 방망이로 두들겨 죽처럼 만든다. 이를 다펜이라 한다. 이 다펜을 나무로 만든 통(紙桶)에 넣고 물과 다펜을 넣어 휘저어 섞는다. 다펜은 황축규의 뿌리에서 나오는 점액질로 만드는데 섬유소들이 서로 잘 엉기도록 한다. 다펜을 섞어 만든 종이는 다른 약품의 첨가가 없이 그대로 중성지가 되어 시간이 흘러도 종이가 산화하지 않는다. 이 점이 양지와 한지의 뚜렷한 차이점이다.

다죽과 다펜이 잘 섞인 물에서 종이를 ㉠ 뜬다. 지통 위에 틀을 매달고 대나무 받을 얹은 다음, 앞쪽의 물은 떠서 뒤로 흘리고, 오른쪽 물은 떠서 왼쪽으로, 왼쪽 물은 떠서 오른쪽으로 흘리기를 두 번 반복한다. 이 흘림뜨기 방식으로 종이를 뜨면 섬유 조직이 상하 좌우로 열기설기 얽히어 종이의 강도가 높아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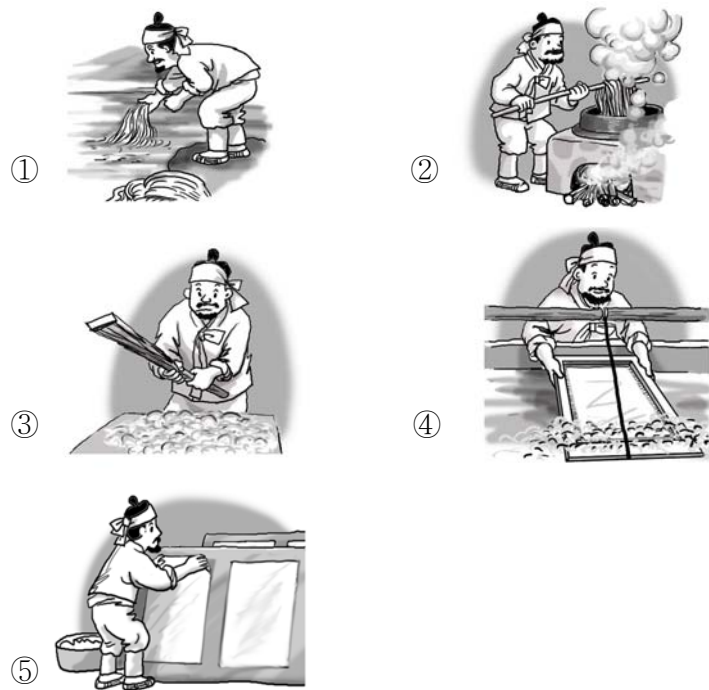
종이가 덜 말라 꾸덕꾸덕한 상태에서 얇은 쌀풀 칠을 하여 150장 정도를 쌓은 뒤, ㉡ 도칠의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나무 방망이로 종이를 두들기는 것이다. 이 과정을 거치면 종이에 윤기가 나고, 종이의 표면이 치밀해져서 강도가 좋아진다.

한지 제조와 같은 전통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칠 것이 아니다. 옛 문헌과 옛 유물에 대한 철저한 과학적 분석과 연구를 통하여, 전통 기술을 정량화하여 대량 생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53. 위 글을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한지를 생산하고 있는 지역의 물은 철분 함유량이 아주 적거나 거의 없을 거야.
- ② 한지 외에도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전통 기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 봐야겠어.
- ③ 한지를 만드는 원료나 첨가물은 모두 자연에서 채취한 것이니까 오염 물질의 배출이 적을 거야.
- ④ 한지를 만들 때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만으로 표백력이 매우 강한 잿물을 만들어 쓴 조상들의 지혜가 놀라워.
- ⑤ 한지 제조 과정을 보니 사람의 손이 많이 가서 생산성이 낮은 것 같아. 원리는 살리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54. 다음은 한지 제조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위 글에 언급되지 않은 것은? [1점]



55. 밑줄 친 말이 ㉠과 유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은? [1점]

- ① 봄이 되면, 알맞게 뜬 메주로 장을 담갔다.
- ② 얇게 뜬 김은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높은 값에 팔린다.
- ③ 누나가 아버지의 생신 선물로 준비한 것은 직접 뜬 조끼였다.
- ④ 이번 답사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은 직접 탁본을 뜬 일이야.
- ⑤ 오늘은 우리 하늘에 우리 손으로 만든 비행기가 뜬 역사적인 날입니다.

56. 방법과 효과 면에서 ㉡과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대나무를 증기로 찌서 탄력을 높였다.
- ② 페인트에 시너를 섞어 칠하기 좋게 만들었다.
- ③ 쇠를 단련하여 강도가 높은 농기구를 만들었다.
- ④ 구리선에 P.V.C 로 옷을 입혀 절연 기능을 가지게 하였다.
- ⑤ 구리와 주석을 합금하여, 구리의 강도를 높인 청동을 만들었다.

[57~6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장쇠가 말을 잡고 내리라 하거늘 장화 크게 놀라 묻되,
“이곳에서 내리라 함은 어떤 말이고?”
장쇠 가로되,
“그대를 외가에 가라 함은 진정이 아니라 잘못 행동하여 낙태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대를 이 못에 넣고 오라 하여 이곳에 왔으니, 빨리 물속으로 들어가라.”
하며 잡아 내리는지라. 장화 이 말을 들으며 청천백일에 벼락이 내리는 듯 뉘를 잃고 소리질러 울부짖기를,
“유유창천(悠悠蒼天)은 이 어떤 일이니이꼬? 무슨 일로 장화를 내시고 천고에 없는 악명(惡名)을 지고 이 못에 빠져 죽어 속절없이 원혼이 되게 하시려고? 유유창천은 살피소서. 장화는 세상에 태어난 이후로 문밖을 모르거늘 오늘날에 맺힌 누명을 언사오니 전생 죄악이 이같이 중하던지 우리 모친을 일찍 잃어버리고 슬픈 인생이 이 세상에 살아 있다가 간악한 사람의 모해를 입어 단불에 나비 죽듯 하니 죽기는 싫지 아니하거니와 불측한 악명을 어느 시절에 씻사오며 외로운 흥련을 어찌 하리오?”
하며 통곡 기절하니 그 정상(情狀)은 목석(木石)이라도 슬퍼하련마는 무지한 장쇠는 다만 재촉하여, 적막 산중에 밤이 깊을 뿐 아니라 ‘이미 죽을 인생이 발악하여 무익하니 바빠 물에 들라’ 하거늘, 장화 겨우 정신을 수습하여 울며 말하기를,
“나의 망극한 경지를 들으라. 우리 비록 이복(異腹)이나 아버골육은 한가지라. 전일 우애하던 일을 생각하여 영영 황천으로 돌아가나 인명을 가련히 여겨 잠시 말미를 주면 외삼촌 집에 가서 망모(亡母)의 가묘에 하직 인사하고, 외로운 흥련을 부탁하여 위로코자 하나니, 목숨을 보존하여 누명을 신원(伸冤)코자 함이 아니라 변명한즉 계모에게 해 있을 것이요 살고자 한즉 부명(父命)을 거역함이니 정해진 명대로 하려니와 바라건대 나에게 잠깐 말미를 주면 다녀와 죽음을 청하겠노라.”
③ **하며 비는 소리 애원 치절하되 토목(土木) 장쇠놈은 조금도 동정하는 빛이 없어 마침내 듣지 아니하니,** 장화 더욱 망극하여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며 가로되,
“명천(明天)은 이 자의 원을 살피소서. 장화의 팔자 기박하여 6세에 모친을 여의웁고 자매 서로 의지하여 서산에 지는 해와 동녘에 뜬 달을 대하면 간장이 스러지고 후원에 피는 꽃과 옥계에 뜬 풀을 보면 하염없이 눈물이 비 오듯 하여 지내옵더니 3년 후 계모를 얻으며 성품이 불측하여 박대 심한지라. 서러운 간장과 슬픈 마음을 이기지 못하오나 낮이면 부친을 바라고 밤이면 망모를 생각하며 자매 서로 손을 잡아진진 여름날과 가을밤을 한숨과 탄식으로 지내옵더니 몹시 음흉하고 악한 계모의 독수(毒手)를 벗어나지 못하여 오늘날 이 못에 빠져 죽사오니 이 장화의 천만 애매함을 천지일월은 질정(質定)하소서. 흥련의 잔인한 인생을 어여빠 여기시어나 같은 원귀(冤鬼)를 본받게 마옵소서.”
하고 장쇠를 돌아보며 이르기를,
“나는 이미 악명을 입어 죽거니와 저 외로운 흥련을 어여빠 여겨 잘 인도하여 부모에게 득죄함이 없게 하라. 부모를 모서

백세무양(百歲無樣)함을 바라노라.”
하며 왼손으로 홍상을 부여잡고 오른손으로 월귀탄을 벗어 들고 주리를 벗어 발을 동동 구르며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오던 길을 향하여 실성통곡하며 가로되,
“아뿔사! 흥련아. 빈방에 너 홀로 앉아 밤인들 누구를 의지하여 살리오? 차마 너를 버리고 죽는 간장이 구비구비 다 썩는구나.”
④ **말을 마치고 만경창파에 나는 듯이 뛰어드니** 문득 물결이 하늘에 닿으며 찬바람이 일어나고 공중에서 큰 호랑이가 내달아 꾸짖기를,
“네 어미 무도(無道)하여 애매한 자식을 모해하여 죽이니 어찌 하늘이 무심하리오?”
하며 장쇠놈의 두 귀와 한 팔과 한 다리를 베어 먹고 간 데 없거늘, 장쇠 기절하여 거꾸러지니 장화 탕던 말이 놀래 집으로 돌아가더라.

<중략>

하루는 흥녀가 나가고 없거늘 장쇠를 불러 달래며 장화의 거취를 탐문하니, 장쇠 감히 감추지 못하여 장화의 전후사를 설파하는지라. 그제야 흥련이 제 언니가 애매하게 죽은 줄 알고 애호일성(哀呼一聲)에 기절하였다가 겨우 정신을 차려 가로되,

“어여뿔사 언니여, 야속할사 흥녀로다. 잔인할사 우리 언니여, 불측할사 흥녀로다. 불쌍하다 우리 언니 나이 몇이라고 적막공방(寂寞空房)에 외로운 나를 버리고 한없는 물에 빠져 죽어 슬픈 혼백이 되었는고? 세상 사람이 제 명에 죽어도 오히려 부족히 여기거든 참혹하다 우리 언니여 이팔 청춘에 불측한 악명을 씻지 못하고 천추원혼이 되었으니 고왕금래에 이런 지극히 원통한 일이 또 어디 있으리오? 명천(明天)은 아소서. 소녀 3세에 어미를 여의웁고 언니와 더불어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옵더니, 외로운 몸이 전생에 죄가 많아 차생(此生)의 목숨이 기구하여 일신이 의지할 곳이 없사오니 모진 목숨이 외로이 남았다가 언니처럼 더러운 욕을 보지 말고 차라리 내 몸이 먼저 죽어 남을 원치 말지니, 이제 정회(情懷)를 생각하오매 죽기만 원하옵나니 소원대로 죽여 주시면 외로운 혼백이라도 언니와 한가지로 다니고자 하나이다.”

말을 마치며 옥루만면(玉淚滿面)하여 정신이 비원(悲願)한지라. 아무리 언니가 죽은 곳을 찾아가고자 하나 규중(閨中)의 여자 몸으로 문밖길을 모르거늘 어찌 그곳을 능히 찾아가리오? 주야로 한탄할 뿐이러니, 하루는 청조(靑鳥)가 날아와 백화만발한 곳에서 오락가락하거늘 흥련이 생각하되, ‘언니 죽은 곳을 영영 모르겠더니 청조가 저리함은 필연 나를 데려가려 함인가’ 하여 슬픈 정회를 진정치 못하더니, 날이 밝으며 청조 오기를 기다릴 새 해가 지기를 창가에 의지하여 헤아리되 ‘청조가 아니와도 언니 죽은 곳을 찾아가려니와 이 일을 부친께 고하면 필연 못 가게 할 것이니 스스로 이 사연을 기록하여 두고 가리라’ 하고 인하여 지필을 가져다 유서를 쓰니 대충 쓰기를

㉠

- 작자미상, 장화흥련전(경판본) -

57. ㉠의 내용을 추리하여 쓴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점]

슬프다, ① 모친을 일찍 이별하고 자매가 서로 의지하여 세월을 보내더니 언니가 죄 없이 악명을 입어 이 지경에 이르니 어찌 슬프며 원통치 않겠습니까? ② 전일 늘 언니와 같이 한시도 슬하를 떠남이 없이 지내다가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를 줄을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③ 때마침 오늘 청조가 무심히 지저귀는 소리를 듣게 되니 슬프고 원통한 심사가 더욱 깊어져 더 이상 집에 머물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④ 지금 이후로 다시는 아버님의 모습을 뵈지 못하오며 음성을 들을 길 없사오니 어찌 통한치 않겠습니까? ⑤ 불초녀 홍련은 지극한 애사(哀詞)를 아뢰오매 눈물이 앞을 가리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듯합니다. 바라옵건대 아버님은 불초녀를 생각하지 마시고 만수무강하소서.

58. [가]와 [나]에 나타난 공통점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점]

- ① 초월적 존재에 하소연하고 있다.
- ② 동기에 대한 애정이 나타나 있다.
- ③ 후세에서의 만남을 기약하고 있다.
- ④ 자신의 불행한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원망을 드러내고 있다.

59. <보기>의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 과제 : 위 글과 활자본 장화홍련전 비교해 보기
- 비교해 볼 만한 대목(이하 활자본 장화홍련전의 관련 대목)
 - ㉠ : ‘그 소리 애원 처절하여 사람이 차마 들을 수 없고 듣지 않을 수 없건마는 저 토목 같은 장쇠놈은 조금도 불쌍하고 가엽게 여기는 빛이 없어 마침내 듣지 아니할 뿐더러’
 - ㉡ : ‘말을 마치며 만경창과 중으로 나는 듯이 뛰어드니, 가련하도다! 장화 원통함을 누가 알아서 그 누명을 씻어 주리오. 천도가 무심치 아니하니 필경 주고받는 이치가 있으리로다.’
- 결론 : (㉡)

- ① 위 글보다 활자본 소설에서 서술자의 개입이 두드러진다.
- ② 위 글보다 활자본 소설에서 인물의 감정 표현이 직접적이다.
- ③ 활자본 소설보다 위 글에서 인물에 대한 묘사가 주관적이다.
- ④ 활자본 소설보다 위 글에서 인물 사이의 갈등이 더 뚜렷하다.
- ⑤ 활자본 소설보다 위 글에서 공간적 배경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다.

60. <보기>를 참고했을 때, 위 글과 관련하여 제기할 수 있는 의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소설은 시대와 현실을 반영한다. 새로운 유형의 소설이 등장하는 것은 현실의 변화와 맞물려 있는 경우가 많다. 조선 후기에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을 중심으로 한 계모형 가정소설이 크게 유행하게 되는데, 장화홍련전은 그 대표작으로 꼽힌다. 다양한 판본과 아류작을 파생시킨 장화홍련전은 계모의 인물형을 소설 속에서 본격적으로 정립한 작품이다.

- ① 작품에 나타나는 계모의 이미지와 당대 현실에서의 계모의 이미지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 ② ‘홍녀’로서의 계모와 박해 받는 존재로서의 장화·홍련의 이미지가 이 작품의 결말에서는 어떻게 달라질까?
- ③ 작품에서 드러나듯 ‘홍녀’로 지칭되는 계모라는 인물형이 조선 후기에 서사적으로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 ④ 계모형 가정 소설이 유행했던 조선 후기 시대 상황과 장화·홍련이 계모에 의해 죽게 되는 작품 속 상황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 ⑤ 계모형 가정 소설의 특징인 계모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이 작품에서는 장쇠와 전처 자식 간의 갈등으로 변화된 이유는 무엇일까?

※ 확인 사항

○ 문제지와 답안지의 해당란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하십시오.